

추수감사주일 설교

한 철 인 (목사, 강원 춘천 금산교회)

본문 : 함 3:17-18

제목 : '찌라도' 감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삶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 중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때가 미국 선교의 영향과 우리나라  
의 기후 조건에 따라 수확기에 맞추어 11월 셋째 주일에 많이 지키  
지만 일부는 우리나라 전통절기인 추석에 맞추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  
이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땀 흘려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정성스레 돌  
보며 농사한 오곡을 거두어들인 후 하나님께 햇볕과 바람과 비를 열  
매 맺도록 허락하시고 낮과 밤도 주장하셔서 우리를 복 주셨음을 감  
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추수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  
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찌라도' 감사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 네 종  
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찌라도 감사, 믿음의 감사)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 조건적 감사)

감사의 조건이 없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심의 삶)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욕심과 불만의 삶, 악인의 태도)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합니까?

작년 5월 시찰 내 목회자들과 함께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환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날 설교를 맡은 전도사님이 문기를 찌라도(島)에 가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두 번째 방문하는 소록도인데 아직 보지 못한 부근에 유명한(?) 찌라도(島)라는 섬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일행 중 아무도 알거나 가보지 못했다고 하자 함께 예배드리는 환자 교우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찌라도(島)를 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꼭 보고 가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찌라도(島)는 실재하는 섬이 아니라 나병으로 부모 형제 처자식과 이별하여 고향 땅을 떠나 섬에서 생활하는 소록도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부모 형제 처자식과 떨어져 소록도에서 살고 있다 할 찌라도~

고향 땅을 떠나 사람들이 잊고 있는 외로운 섬에서 살고 있다 할 찌라도~

나병으로 손과 발과 눈과 피부가 보기 흉하게 되었다 할 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록도 교회 교인들이 '찌라도'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부끄럽고 또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록도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육체는 비록 병들었지만 영혼은 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란 육체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많아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병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찌라도'의 신앙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언자 하박국에 관한 자료는 하박국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활동 연대도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인들은 주전 625-539년 사이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박국 1:6을 유다 왕국에 대한 갈대아의 위협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갈그마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하박국의 연대를 여호와김왕 (BC 609-598년)시대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유다 왕국의 암흑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유다 왕 여호와김은 폭군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안은 부정과 착취와 죄가 횡행하였으며 악인이 흥청거리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의 예언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질문의 핵심은 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사회와 인간들에게 시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의인과 또 의로운 백성에게는 번영의 상을 주시고 악인과 악한 민족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상선 별악의 사상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의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왕국의 무죄한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악한 왕에게까지 심한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

나눔은 불의한 백성과 왕들은 반드시 벌을 주고 징계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 2:4)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확신하고 살아가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고전 1:27).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 10:52), 또는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예배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소리, 술 취한 소리가 교회까지 넘어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술집이 더러운 곳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정말 그 술집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회 대표로 나온 집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겠느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드디어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방패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면

서도 살아가는 자세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도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에 다시 믿음을 회복한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도맞추어 맞춘 기도를 통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 찌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찌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찌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 찌라도

우리에 양이 없을 찌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한해 힘겹게 살아오신 성도여러분, 그럼에도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의 ‘찌라도’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農